

# 봄바람 따라 유유자적... 낮·밤이 즐겁다 '광양 시티투어'

### 수요일 '역사'·금요일 '야경코스' 4월 새 여행상품 선보여 순천만 정원박람회 연계 일정·명소 17곳 중 4곳 인증 이벤트도

광양시가 지역 역사 유적을 살펴보고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4월 광양시티투어' 상품을 내놓았다.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티투어'라는 이름을 붙인 4월 여행 상품은 수요일 '역사코스'와 금요일 '야경코스' 등으로 구성됐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여행 일정도 만들어 순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꾀했다.

15명 이상이 모여 광양 관광지 4곳을 들르고 한끼 식사하면 자율적으로 여행 일정을 짤 수 있는 단체코스(월·화·목)도 개설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광양시티투어 운영을 중단한 뒤 다시 시작한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는 138명이 이 관광 상품을 이용했다.

수요일 '역사코스'는 순천역(오전 10시 10분)과 광양읍터미널(오전 10시 45분)에서 출발한다.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를 찾은 광양불고기특화거리에서 점심을 먹고 인사리공원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어 광양역사문화관과 광양장도박물관, 광양공시전수교육관 등을 탐방하고 광양읍터미널(오후 5시 5분)을 지나 순천역(오후 5시 40분)에 도착한다.

금요일 '야경코스'는 순천역(오후 3시 20분), 광양읍터미널(오후 3시 55분)에서 버스를 탄 뒤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등을 방문하고 불고기거리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이어 구봉산전망대와 이순신대교, 해오름육교 등에서 아름다운 광양의 야경을 즐긴다. 여행의 끝은 밤 9시 25분 광양읍터미널과 밤 10시 순천역에서 마무리한다.

토요일 여행은 순천역(오전 10시 10분), 광양읍터미널(오전 10시 45분)에서 탑승해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를 관람하고 불고기거리에서 점심을 먹는다. 이어 백운산자연휴양림, 광양역사문화관, 구봉산전망대 등을 여행하고 광양읍터미널(오후 5시 50분), 순천역(오후 6시 25분)에 도착한다.

일요일에는 순천역(오전 10시 10분), 중마관광

안내소(오전 10시 55분)에서 탑승해 배알도 섬정원, 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옥 가옥, 광양김시식지 등을 여행하고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에서 점심을 먹는다. 이어 이순신대교, 해오름육교, 구봉산전망대 등을 찾고 중마관광안내소(오후 5시 15분), 순천역(오후 6시)에 도착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출발하는 여행은 토요일 정오와 일요일 오후 2시에 출발한다. 토요일에는 불고기거리에서 점심을 먹고 옥룡사동백나무숲, 인사리공원, 광양역사문화관,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등을 관람한 뒤 정원박람회장(오후 6시 10분)에 도착한다.

일요일에는 배알도 섬정원과 운동주 유교 보존정병옥 가옥, 광양김시식지 등을 여행한다. 이어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순신대교, 선사인해변공원 등 광양만의 야경을 감상한 후 정원박람회장(밤 9시 10분)에서 여행을 마무리한다.

광양시티투어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투어 3일 전까지 유선(061-794-8804-5)으로 예약해야 하며, 7명 이상 예약 시에만 운행한다. 단체는 7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이용요금은 일반 5000원, 군인·경로·학생 4000



원, 장애인·미취학 아동 3000원이며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이다. 한편 광양시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광명소 17곳 가운데 4곳 방문을 인증하면 선물을 주는 '2023 광양 모바일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날 보러 와요' 30m 물줄기 오동도 분수 쇼



여수시, 10월 말까지 운영

여수시가 '오동도 음악분수' (사진)를 3일부터 다시 운영한다.

음악분수는 오는 10월 말까지 평일 오전 11시-오후 8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다. 30분 간격으로 15분간 분수 쇼가 펼쳐진다.

최신 가요와 영화 삽입곡 등 20곡을 배경음악으로 12가지 종류의 분수 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분수 운영에 앞서 여수시는 영화 '위대한 소년'에 들어간 '디스 이스 미' 등 10곡을 추가하고, 오래된 부품을 교체하며 정비를 마쳤다.

오동도 음악분수는 높이 30m, 폭 45m 규모로 지난 2005년부터 운영돼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보완 공사를 거친 음악분수가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침수 피해' 구례 하수처리시설 3년만에 복구

2020년 섬진강 범람 피해  
지난해 착공 494억 투입

섬진강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본 구례군 하수처리시설이 2년 7개월 만에 복구됐다.

구례군이 지난 2020년 섬진강 범람으로 침수됐던 하수처리시설과 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을 최근 복구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섬진강과 마산천이 넘치면서 완전히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다.

구례군 하수처리시설 4개 동은 하루 평균 5500t을 처리해왔는데, 2개 동씩 번갈아 운영하며 복구 작업을 벌였다.

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은 완전히 침수되면서 인근 시·군까지 분뇨를 옮겨 처리하며 복구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재해복구사업에는 국비 247억원, 지방비 247억원 등 494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21년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지난해 착공해 1년 2개월 만에 복구를 마무리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설물을 개선하고 차수벽을 설치했다"며 "섬진강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된 구례 하수처리장, 분뇨·가축분뇨처리장이 최근 복구된 모습. <구례군 제공>

## 농업미생물 배양·축사 악취 고민 해결

### 곡성 고농도미생물배양시설 다음달 가동...6월부터 상시 공급

친환경 농업과 축사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곡성 '고농도 농업미생물 배양시설'이 완공돼 본격 가동된다.

곡성군은 곡성읍 신월리 일대에 들어선 '고농도 농업미생물 배양시설'이 다음달부터 운영된다고 3일 밝혔다.

고농도 농업미생물 배양시설은 부지 1614㎡, 단층 494㎡ 규모로 23억원이 투입돼 건립됐다.

시설에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미생물 배양 실험실, 저온 저장 시설, 사무실 등이 조성됐으며 비대면 무인접수 시스템, 농가 정보가 전산화된다.

또 고성능 미생물 멸균 배양기가 도입돼 잡균 오염 발생 가능성이 차단됐으며 각종 계측제어 장치를 통해 목적 미생물 배양에 최적화된 환경도 조성됐다.

1회 배양 생산능력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생

물의 농도도 10배에서 100배 이상 높아져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 미생물은 농업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 총 4종이며 희망 농가는 사전 예약 후 매주 수요일에 받을 수 있다.

6월부터는 소포장 시스템이 도입돼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지역은 친환경과 축사 악취 저감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작물의 생육 촉진, 생산성 향상, 병해충 방제, 토양 개량 등에 효과적인 농업 미생물의 수요량이 늘어났다"며 "고농도 농업미생물이 공급되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축사 악취 저감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광양 '소상공인 5% 이자 지원' 조기 종료

### 두달만에 423명 신청해 예산 소진...시 지원 이자 5억7천만원

광양시가 전남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상공인 5% 이자 지원을 추진하자 두 달 만에 423명이 몰려들어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시는 지난 2월 초 시작한 '소상공인 용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이 시행한 지 52일 만에 423명이 신청하며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자보전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모두 113억9300만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았다.

광양시는 전남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자 지원비율을 5%(1년 150만원)로 늘렸다. 시가 지원하는 이자액은 모두 5억7000만원이다.

6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대출 금리는 5.5%로 상한을 뒀다. 이로써 광양지역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은 최대 0.5%로 낮춰졌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었으며, 올해부터

는 광양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광양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출 이자 지원비율이 3%였던 지난해에는 93일 동안 399명이 110억3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통해 지원한 이자액은 3억3100만원이었다.

올해는 이자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년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에 사업 예산이 동났다.

지다영 광양시 지역경제과 주무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고물가에 대한 지역민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지원액을 확대했더니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이 몰렸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보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보성군, 경로당 찾아 혈관 튼튼 건강교실

###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원예 수업·몸풀기 등

보성군이 고령자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경로당 8곳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을 진행한다.

보성군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경로당 1곳당 6차례 걸쳐 교육이 이뤄진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은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의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전체 사망원인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에는 심근경색증·협심증·심부전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등 선행 질환이 포함된다.

예방교실은 혈압·혈당 등 기초 검사와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생활터 주변 낙상 예방법을 익히고 원예 수업과 고무밴드로 몸풀기, 금연 교육, 우울증 예방 교육 등도 진행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에는 '담배 반드시 끊기'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기'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 충분히 섭취하기'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하기'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하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꾸준히 치료하기'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증상 발생 즉시 병원 가기' 등이 있다.

선문시 보성군 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해 건강 생활 습관 실천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